



Sea & Museum

'바다와 미술관'전에서 만나는 정유미 작가의 '잠시 쉬어가는 당신에게' 등이 눈길을 끈다.

상상의 바다... 미지의 세계로

이강하미술관, 10월30일까지 'Sea&Museum 바다와 미술관' 전
김현철·김민우·노세환·정나영·정유미·이안리 참여...도슨트 해설

광주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은 매년 여름 '환경과 예술'을 테마로 기획전을 진행해왔다. 지구와 미술관, 우주와 미술관에 이어 올해는 '바다'가 주제다. 예술가들이 지구와 우주, 바다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동경과 상상력을 담아 풀어낸 다채로운 작품은 관람객들에게도 흥미롭게 다가온다.

'2022 Sea&Museum 바다와 미술관'전이 오는 10월30일까지 펼쳐진다. 공모를 통해 참여작가를 선정한 이번 전시에는 서울, 경기, 순천, 벨기에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김현철·김민우·노세환·정나영·정유미·이안리 작가는 영상,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로 '바다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이번 기획전은 유리창 너머 푸른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을 전시 공간으로 끌어들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전시장 입구에서 만나는 작품은 이안리 작가의 'Share/Inuit Suit'다. 작가가 북극항에서 주워온 물건을 활용한 작품으로 인누이트들의 지혜를 떠올리게한다. 작가는 땅콩껍질을 엮어 멧게를 만드는 등 바닷속 생물들도 구현했다. 또 고(故) 이강하 화백의 흔적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난생 처음 광주를 방문, 미술관이 있는 양림동

에 머물며 작업한 김현철 작가의 작품 '해도(海圖)의 도해(渡海)'는 현해탄에 몸을 던진 김우진과 윤심덕, 양림동에 살았던 선교사 이야기, 시인의 기록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이다.

철썩이는 파도소리와 함께 잔잔한 내레이션, 발췌글,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은 '해도'를 보며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하는 작가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 풀어놓은 흥미로운 영상이다. 윤심덕이 불렀던 '사의 차미'가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전시장에 부착된 다양한 아카이빙 자료를 하나하나 읽고 있다면 흥미로운 문학작품을 읽는 기분이 든다.

지난해 여수 장도 레지던스에 머물렀던 정유미 작가는 당시 마음 속에 오래 남았던 '바다'의 이미지를 대형 회화 작품으로 풀어냈다. 흔히 표현되는 바다의 파도와 물결 대신, 바닷속 장면처럼 보이면서도 마치 바람이 부는 들판의 느낌도 전해지는 '잠시 쉬어가는 당신에게' 연작 등이 눈길을 끈다.

정중양에 놓인 정나영 작가의 회어(希魚)는 오랜 해의 생활을 하고 돌아온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연어에 투영해 제작한 작품이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방향 감각을 놓친 물고기는 꼬리와 지느러미를 잃어버리고, 단단한 파이프에 고정돼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의 탈출을 꿈꾸며 희망을 잃

지 않는다. 관람객들이 바닷속 처럼 보이는 유리 위에 고정된, 낭창낭창 움직이는 긴 파이프를 흔들며 작품을 감상할 때 멈춰있는 물고기는 조금씩 항해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 등 제주 4·3과 관련한 영상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노세환 작가는 광주지역 지적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 'An Ultra Marine'을 선보였다. 영상작품을 본 발달장애인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묘사한 각각의 푸른빛깔 회화작품은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의 추상화처럼 보인다.

키아트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벨기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민우 작가의 작품 '우주 거울에 비친 나르키시스'와 설치 작품 '바다의 구조'는 바다거북이가 대 해엄치는 상상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이다. 바다는 비가시적 영역인 상상의 세계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인지해 본 시도이기도 하다.

전시 기획한 이선 큐레이터는 "바다는 인류 문화의 중요한 배경, 중심의 원천, 문화적 시초가 되기도 하고 자유, 이동의 수단, 폭풍, 쓰나미, 용기, 모험 등 선택과 의식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며 "이번 전시는 바다를 주제로 미지의 세계를 향한 6명의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시도와 창의적 진동"이라고 말했다. 매일 오후 3시 도슨트 전시해설 프로그램(네이버·유선 예약)도 운영한다. 문의 062-674-8515.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10월30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는 '바다와 미술관'전에는 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광주시립합창단, 23일 북구문화센터...리디아 팩토리 등 무대

'한 여름밤, 알프스의 유쾌한 멜로디 여행.'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엔시안요텔클럽과 재즈밴드 리디아 팩토리밴드가 함께한다.

첫 번째 무대는 혼성합창으로 '루나', '문 플라워' 등 합창연주에 어울리도록 각종 악기들과 함께 재구성한 곡들과 영화 '매트릭스'의 OST로 유명한 '나브라스'를 들려준다.

이어 독창 무대에서는 카운터테너 김대성이 영화 '파리베르' 중 '올게하소서'를 메조소프라노 김혜원이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아리아 '하바네라'를 들려준다.

또 남성합창으로 에릭 레비의 '나는 믿어요'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중 '대성당들의 시대'를 들을 수 있다.

독창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장은지가 '노래하지 마요, 아름다운 여인이여'를, 베이스 김창식이 윤학준의 '마중'을 들려주고, 이어지는 여성합창 무대에서는 '그리움만 쌓이네'와 '희상'을 연주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광주엔시안요텔클럽의 공연으로 알프스 중주, 외르젤리 합주, 우드스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며 '아름다운 베르



김인재

네산골', '에텔바이스'를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부른다. 광주엔시안요텔클럽은 1977년 창단해 올해 45주년을 맞이한 광주 유일 한국요텔협회 소속 클럽이다.

초창기부터 김홍철 초창 요들 송합창회로 실력을 다졌으며 이후 해외연주 여행, 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 방송 출연, 정기연주회 등 매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음악 전공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클래식 악기와 접목시켜 다양한 연주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혼성합창으로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 '리베르 탱고', 보컬 재즈 '인 더 무드', 행복이 넘치는 가사에 컨트리 스타일의 음악이 웃 입혀진 대중음악 '라라라'로 대미를 장식한다.

김인재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실력과 뮤지션들로 구성된 재즈밴드 리디아 팩토리가 라이브 연주를 함께 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415-5203.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엔시안요텔클럽

지맵 '뉴미디어아트에서 NFT까지' 강좌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18일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강좌 '뉴미디어아트에서 NFT까지'를 시작한다. 모두 9차례 진행되는 강좌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G.MAP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90명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된다.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첫 강좌는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강사로 참여한다.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인 민 원장은 이번 강좌에서 '데이터의 시각화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강연한다.

민 원장은 비주얼 소프트웨어를 개발, 정보를 실시간 처리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창작인 '데이터의 시각화', 그리고 이의 구

현 수단인 창작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또 디지털 시대의 '뉴 리얼리즘'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과 진단을 덧붙일 예정이다.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석사 수료한 민 원장은 MIT 센서블 시티랩 도시정보 디자인 연구원, 한국인 최초 TED펠로우를 거쳐 2019 서울라이트 총감독, 구글 아트&컬처 아티스트,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랜덱스 대표로 활동했다. 문의 062-613-6124-5.

/김미은 기자 mekim@

민세희

조선 천문학자 류방택을 만나다

극단 까치날 '천문' 초연 19~20일 서구문화센터
이영민 대표 연출...류방택 역에 정흥채·한중곤

'조선의 하늘을 돌며 새긴 고려 충신의 이야기.'

극단 까치날의 연극 '천문(天文)'이 오는 19일(오후 7시)과 20일(오후 3시) 광주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초연된다.

'천문'은 조선 초기 천문학자 류방택이 제작한 국보 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모티브로 별자리와 별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했다. '하늘을 사랑한 민족'이라는 주제로 미디어아트와 배우들의 연기로 펼쳐진다.

'천문'은 고려의 충신이었으나 오히려 새 왕조 '조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천문도를 제작하게 된 비운의 천문학자 류방택의 이야기를 다룬다.

공연은 조선 중엽을 배경으로 연어는 자연재해와 외침으로 백성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까지 창궐해 시름이 깊어진 세자에게 관상감의 판관은 별을 사랑했던 한 남자에 관해 이야기를 전해지면서 시작한다. 고려 말의 세 충신(정몽주·김재·이색)과

같은 길을 가려 했으나 백성이 눈에 밟혀 그리하지 못한 남자. 그는 혼돈의 우주, 철학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며 빛나는 별처럼 백성들 역시 하늘의 원리를 전해주면 굳건히 버티고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천문학자 류방택의 소신과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애민 사상을 전해들은 세자는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을 진정된 별로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단 까치날 이영민 대표가 연출을 맡았고 김원민 작가가 극작, 진시영 미디어아티스트가 영상을 제작한다. 류방택 역으로 정흥채·한중



윤진철



정흥채



한중곤

곤, 집사역 윤희철, 권남(영의정)역 박규상, 도상수(맹청)역 심성일, 병조판서역 임홍석, 관상감 판관역 임한창, 상공역 오

진숙, 노을역 장희재, 세자역 김태현, 도훈역 이수민 배우가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상단극단 '극단 까치날'이 마련한 창작공연으로 광주문화재단 '202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19일 오후 3시 공연은 비대면 유튜브 라이브(극단까치날)로 송출한다. 7세 이상 관람가능. 무료 관람. 공연문의 및 예약 062-372-3210.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규상

문화예술위, 18일 클라우드펀딩 역량 강화 비대면 교육

예술가들의 클라우드펀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이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3시 줌(Zoom)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창작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소개할 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위는 지난 2017년부터 '텀블벅'과 업무협약을 맺고 클라우드 펀딩 시장 확대를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교육에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작품 홍보, 후원자 예우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텀블벅에서 목표금액 1812% 펀딩을 달성한 소설 '달라구트 꿈 백화점' 등 성공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문화예술 분야 클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줌 접속 후 다음(회의ID : 619 002 2900 / 비밀번호 : 2100)을 입력하면 된다. 문의 061-900-229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